

현장과 시각

“박람회 지역축제나”



홍행기
정정부 차장

“요즘 들어선 정말 정부가 왜 이러나 싶습니 다. 신하게 말하면 유치도, 부끄러움도 없는 정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최근 한 행사장에 서만 난 전남도의 고위 관계자는 전남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사건건 여섯장을 놓는’ 이명박 정부의 처신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새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인 참여정부에서 이미 결정되고 또 집행중인 사업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남의 핵심 개발사업들을 축소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넘겨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

‘검은 혁명’ 예고... 숨죽인 아메리카

오늘 美 대선... 오바마 승리 유력
매케인, 대역전 기대 지지 호소

역사적인 제44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한국 시간 기준)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전역이 흥분과 긴장 속에 사로잡혀 있다.

건국 232년 만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의 탄생을 현실화할 아주 높은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매체들은 벌써 차기 대통령의 과제에 대해 논하며 선거 이후를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조상이 노예의 신분으로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딛던 뒤 온갖 차별과 부당대우에서 시달려왔던 흑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과 피부색깔이 같은 ‘세계의 대통령’ 탄생 예고에 열광하고 있다.

반면에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 진영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든 예측일 뿐이라며 애써 이에 초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극적인 역전드라마를 기대하며 막판까지 혼신을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 오바마 승리 예측=여론조사 결과만으로도 볼 때 이미 미국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보수성향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기관과 언론들은 흑인인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승리를 내다 봤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한 결과 오바마가 매케인을 평균 6.9%포인트 앞서고 있다면서 보수성향인 폭스뉴스 조사에선

3% 포인트, CBS 조사에선 13% 포인트까지 오바마가 매케인을 리드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유력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는 각 주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케인이 현재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하더라도 오바마를 이길 수 없다고 매케인에게 절망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포스트는 오바마가 확보 가능한 선거인단 수는 291명으로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 270명을 훨씬 능가했다면서 매케인으로선 실제 선거에서 오바마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주에서 뒤집기에 성공해야 승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1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스트가 실시한 조사에서 단 2명만이 매케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압도적 다수인 12명의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했다.

일각에선 그동안 흑인 정치인들을 괴롭혀온 ‘브래들리 효과’가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브래들리 효과’란 1982년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 선거에 나섰던 톰 브래들리 후보의 사례에서 유래된 것으로 백인들이 밝히면서도 막상 투표장에 가서는 흑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말한다.

◇ 오바마-매케인, 끝내기 유세전=오바마와 매케인은 2일부터 격전지인 경합주



를 중심으로 마지막 선거유세를 벌이며 한 표를 호소했다. 두 후보는 끝내기 선거 유세 핵심메시지에서도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오바마는 승리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경쟁자인 매케인을 공격하기보다 유권자들에게 당면 최대과제인 금융위기 극복과 국민적 화합을 위해 압도적 승리를 당부했다.

오바마와 매케인 두 후보 진영은 유권자들에게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표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오바마는 2일 오하

이오주를 돌며 유세를 벌인 뒤 마지막 날엔 플로리다, 노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주에서 선거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투표일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투표할 두 인 근 인디애나주를 잠시 둘러 선거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매케인은 2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뒤 곧바로 뉴햄프셔주로 향해 유권자들에게 지난 1월의 뉴햄프셔 정치 이벤 재현을 호소한 뒤 이날 자정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집회를 갖는 등 ‘밤을 잊은 유세’를 벌였다. /연합뉴스

“누가 당선 돼도 한반도 정책 큰 변화 없을 것”

청와대가 미국 대선 이후에 대비한 포석짜기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기존의 한미동맹체제의 굳건한 유지가 절대적인 과제가 될 때문이다. 대선을 하루 앞둔 시점인 만큼 선거 항배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양 진영 핵심 참모들의 동향과 발언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소식통은 3일 “양 진영의 이념과 정책 기초 등에 대한 분석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 우리와 관련된 의미 있는 경우 다양한 접촉 투트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왔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기존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美 대선 촉각 전략 마련 본격 돌입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오바마 후보 진영에 대해서도 핵심 인사들과 상당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는 김성환 외교안보 수석, 김태호 대외전략비서관 등이 주요 참구이며, 외교부, 주미 대사관 등도 가세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바마 진영의 노·소장과는 물론 최근 부상하고 있는 핵심참모들 대부분이 길거나, 아니면 짧게라도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로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북핵 사태 등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놓고 세밀한 논의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다자정상회의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지만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이나 접촉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 당선인 예측 발표 언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 전 세계인들의 귀와 눈이 집중되고 있다.

◇ 24시간 차이나는 주별 투표 개표 시작=미국 대선은 지역에 따라 시차가 나기 때문에 투표가 시작돼 끝날 때까지 가장 24시간이나 걸린다. 또 전자 투표계를 하는 곳도 있고, 수표투표를 하는 지역도 있다. 그런 만큼 당선인 예측이 언제 나올지를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대선 투표는 미 북동부에 있는 뉴햄프셔 주(州)의 소도시인 디스비리 노치와 하츠 로케이션에서 4일 오전 6시부터 시작돼 알래스카에서 끝날 때까지 가장 24시간이나 소요된다.

◇ 투표 개표 관련 주목되는 시간대들=

출구조사 오바마 압승편 오늘 밤, 접전편 내일 새벽 이후

우선 인디애나주의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8시(한국시간 5일 오전 8시)가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확실한 코발이었으나 이번엔 접전지가 된 이 곳에선 사전 여론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출구조사 결과 오바마가 앞선 것으로 나올 경우 노스 캐롤라이나 등 다른 대형 접전 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후 7시는 가장 치열한 접전지이자 선거인단 규모가 많은 플로리다 주와 버지니아 주의 마감시간이다. 플로리다에서도 오바마가 우세할 경우 대세는 오바마의 편임이 확인되지만 매케인이 이길 경우엔 밤늦게까지 항쟁을 가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후 7시30분 마감되는 오하이오와 노스 캐롤라이나의 경우 매케인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통적 공화당 주지만 현재의 판세는 오바마로 치우친 백중세다. 오바마가 이 곳에서도 이기면 승리를 앞둔다고 있는 셈이지만 비슷하게 나오거나 매케인이 우세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오후 8시와 뉴햄프셔와 펜실베이니아 등의 주들의 투표가 마감되며, 9시에도 15개 주의 투표가 끝난다. 따라서 이들 지역까지 반영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누가 대통령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 선거 당일 저녁 8시가 넘어서는 두 차례 대선과는 달리 오바마가 여론조사

서 줄곧 앞서왔고 특히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 중요한 격전지 주들에서조차 오바마의 승리가 확실시됨에 따라 당선인 예측 발표가 선거 당일 밤을 넘기지 않거나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오바마가 이번 선거의 최대 요충지인 버지니아와 플로리다, 오하이오, 인디애나에서 승리했다면 출구조사가 이들 주의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미동부 시간)를 조금 지나서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오바마의 압승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방송사들도 오후 8시30분부터는 일제히 당선인 예측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Jueokseonkoria' (주옥선코리아)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jimiseul' (아침이슬) featuring property listings, a map of the development area,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ales office.